

## 질적 연구방법과 현상학

신충식

---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철학적 토대를 현상학 창시자 후설(Edmund Husserl)의 마지막 저작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형적 현상학』에서 궁극적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그의 진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현상학적 진리관의 근원적인 동기는 한편으로는 과학주의, 객관주의 및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주의, 회의주의 및 심리주의를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 기초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객관학문 또는 실증주의 학문과 초월학문(transcendental science)과의 관계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토대를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려는 초월학문에서 찾고자 한다. 초월학문은 무엇보다 우리 주위의 일상성을 중시한다. 그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일상성의 구조를 이른바 후설의 생활세계(life-world)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질적 연구를 위한 현상학의 강점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포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무엇(what-ness)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귀납을 소개할 것이다. “귀납적”(inductive) 접근과 관련된 질적인 질문은 생활세계, 즉 현장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과학적 방법에 따르는 귀납적 질문과 판이하게 다르며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됨을 밝힐 것이다. 앞으로 행정 현상의 매우 다양한 층위를 분석함에 있어 양적인 연구방법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질적 연구, 현상학, 객관학문, 초월학문, 생활세계, 귀납

---

### I. 서 언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질적 연구의 위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오래전부터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던 분야들로 사회복지학, 문화학, 역사학, 간호학, 교육학, 인

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의 행정학도들 역시 행정학의 영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연구의 질(質)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학 분야에서 질적인 연구는 다분히 “여리고, 주관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질적 연구학자들은 여전히 실증주의적 분석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Evans & Lowery, 2004: 308).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질적 연구는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방법에 반해서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적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들 밖에서 그것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외적 징표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반대하며 그 관찰위치가 주관의 세계 밖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다(최협, 1983). 그래서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관찰하고, 나아가서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과 서로 부대끼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사회과학과 행태과학의 질적 연구방법을 주도하고 있는 크레스웰(John W. Creswell)은 자신의 대표저작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1998)에서<sup>1)</sup> 질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 전통들에 기반 하여 이해하는 연구과정이다.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 하고, 자연스러운 상황(a natural setting)에서 연구를 수행한다(2005: 33f.).

이러한 연구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질적인 연구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그는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기,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적 연구 전통 가운데에서 현상학적 접근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20세기 현상학은 오늘날 질적 연구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기술적 접근법과 해석학적 접근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현상학적 기본 통찰이 질적 연구에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남인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이 책은 얼마 전 사회복지학 교수들에 의해서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학지사, 2005)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일차적인 이유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이 아직도 튼튼한 철학적 토대 위에 정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본다(이남인, 2006: 368).

이 논문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토대를 후설의 마지막 저작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에서 최종적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그의 진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절에서는 양적인 연구에 대한 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후설이 구분하고 있는 객관학문 또는 실증주의 학문과 초월학문(transcendental science)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이남인 교수는 위 논문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철학적 토대를 논의하면서 객관적이고 양적인 연구의 한계를 현상학 외적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질적 연구로서 초월학문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질적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고 있는 경험세계, 즉 현장을 후설이 제시하고 있는 생활세계를 통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객관적 진리와 객관학문을 위해서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면, 초월적 진리와 초월학문의 토대는 생활세계이다. 이러한 생활세계야말로 질적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fieldwork)의 토포스(topos)라 할 수 있다. 후기 후설의 가장 큰 강점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포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의 현상학적 진리관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설득력 있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우리는 이러한 생활세계를 먼저 일상생활에서 이해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세계, 예컨대 문화적·역사적 세계 내지는 언어, 실천적 대상, 사람, 예술작품 등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생활세계는 지각적인 사물들의 시간적·공간적 세계로서 다양한 수준으로 대상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무엇(what-ness)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귀납을 소개할 것이다. “귀납적”(inductive) 접근과 관련된 질적인 질문은 생활세계, 즉 현장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과학적 방법에 따르는 귀납적 질문과 판이하게 다르며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됨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질적 연구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개인들은 그들

2) 후설 현상학에 있어서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분석은 Gail Soffer 교수의 탁월한 저작, *Husserl and the Question of Relativism*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을 보라.

의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감(sense)을 잡게 되는가가 될 것이다(Hesse-Biber and Leavy, 2006: 49).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상학적 통찰에 토대하고 있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모든 양적인 연구방법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연구방법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행정 현상의 매우 다양한 층위를 분석함에 있어 양적인 연구방법은 물론 질적 연구방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지지할 것이다.

## II. 객관학문과 초월학문(transcendental science)

최근 행정학자들에게서 반-계량주의적인 정서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행정학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명시적 행위에 대한 관찰 또는 관찰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된 행태들에 기초한 사실 명제들을 검토하는 것”(Cruise, 2006: 408)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포스트-실증주의 행정학자들(postpositivists)은 과학자의 가치들은 물론이고 관찰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가치들마저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과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공공 서비스와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공영역은 모두 가치들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학자들은 가치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행정학 영역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의 발전이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세기 후반에 어느 학문 분야보다 질적인 연구방법이 발전했던 분야는 사회학과 인류학이었다. 특히 여성학, 인종문제 및 문화 연구 프로그램들이 그들 학문 자체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질적인 연구방법이 급진전했던 데 반해서 “행정학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질적인 연구방법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에반스와 로우어리는 지적하고 있다(Evans and Lowery, 2004: 311).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행정학 분야에서 일부 사례연구를 제외한 질적 연구방법들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질적인 연구를 채택한 논문들 각각의 패러다임, 이론적인 시각, 연구방법 및 기술들 간의 명백한 연계가 빈약한 편이며 그들 논문 가운데 질적 연구를 떠받들고 있는 “해석주의나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같은 쪽). 예컨대, 후설의

현상학은 물론 가다머의 해석학적 방법이 행정학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행정학에서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구성주의적/해석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절박하다고 주장한다(같은 쪽). 따라서 해석학적이고 구성주의적인 패러다임들과 이를 보완하는 기법 및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질적인 연구방법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8세기 이래 객관주의가 초월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양적인 분석 및 질적 연구와 상응하게 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 1. 객관학문의 발생

후설의 후기 분석에 따르면, 철학의 영역에서 가능한 위대한 혁명은 과학적 객관주의 학문을 초월론적 자아와 세계에 대한 순수 정신적 접근에 입각한 초월학문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스피노자, 로크, 라이프니츠, 버클리, 흄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철학의 역사를 그는 “객관주의적 철학과 초월론적 철학 사이에 발생하는 엄청난 긴장의 역사”로 파악한다.<sup>3)</sup> 우리는 서양 근대철학의 초기에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와 같은 합리주의자들이 우리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만을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베이컨과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감각적 경험(sense experience)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주요한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경험주의의 기본 신조는 정당한 인간의 지식이 경험, 즉 감각기관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의식하게 됨으로써 개개인의 마음에 제공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합리주의자와 경험주의자들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이 칸트에 이르러 전자에 입각하여 후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칸트는 종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험적 지식, 즉 경험에 기초하지 않으면서도 경험으로 이해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양자의 입장을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자연과학이

3) 이러한 긴장의 역사 가운데에서 20세기 현상학의 과제는 프랑스의 데카르트, 영국의 흄, 그리고 독일의 칸트가 제공했던 초월적 동기들을 가장 정교하게 종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19세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물리주의적-감각주의적 경향의 객관학문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객관학문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의 공통된 특징은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심리-물리적 이원론을 전제하고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Cruise, 2006).

현상학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객관학문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행정과학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진, 즉 자명한 세계의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1940년대 말기 사이몬(Herbert Simon)은 종전의 과학적 관리 행정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비엔나 서클(the Vienna Circle)의 논리실증주의 네 가지 원칙 가운데에서 검증가능성의 원칙(the verification principle)과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적 이론(the emotive theory of values)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학의 귀납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수립한다.<sup>4)</sup> 이처럼 논리실증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객관주의 학문은 이 세상의 합리적인 존재에 무조건 타당한 것을 추구하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서양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가 진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며 초월론적인 동기에 의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한 이래, 나아가서 18세기 영국의 흄과 독일의 칸트가 이러한 진리 추구를 향한 미래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유럽에서 자연과학의 급성장은 오히려 이러한 객관학문 또는 객관주의적 철학의 세력을 부추겼고, 다시금 실증과학으로 그 세를 더욱 키워왔다(1970: 194). 후설에 의하면, 특히 칸트의 절대적인 노력 덕분에 주어진 세계에 토대한 객관주의적 철학 이념과 역사적으로 전혀 생소한 초월론적 주관성에 토대한 철학 이념 사이에 심각한 전선이 형성되었다(1970: 207f.). 근대철학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편견들이

4) 비엔나 서클 서클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는 다음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논리적 원자주의의 원칙이다. 모든 복잡한 언명들은 그 진리성이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진술들에 의존하며, 이러한 진술들은 그것 외의 다른 어떤 진술들도 포함할 수 없다. 둘째, 의미에 대한 검증가능성의 원칙이다. 그것은 오직 과학적 방법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의미로 이루어진 명제들을 통해서만 진위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선형적 지식(an apriori knowledge)의 분석적 성격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모든 필수적인 진술들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념들의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 원칙이다. 즉 가치에 대한 진술들은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Cruise, 2006: 404).

지속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를 후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인 편견들, 특히 근대 실증과학들의 근원에서 유래하여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편견들의 힘 역시 끊임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편견들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in ihrem aktuellen Sichauswirken; in their immediate effects) 속에 은폐되는 것은 심지어는 어린 아이의 영혼에조차 이미 주입된 그와 같은 편견들의 본성 때문이다. 편견이 없는 것이 되려는 추상적인 일반의지만으로는 그 편견들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1970: 120).<sup>5)</sup>

후설의 표현으로, 심지어 “철학의 목을 베는 decapitates”(1970, 9) 이러한 실증주의적 동기에 따른 19세기 경험주의의 부활은 “부지불식간에 초월론적 동기의 점진적인 강요로 인한 초월철학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1970: 194f.).<sup>6)</sup> 급기야 19세기 후반에는 “근대인의 세계관 전체가 실증과학에 의해 규정되고 실증과학으로 이룩된 ‘번영’(prosperity)에 눈이 멀어” 탐구자는 가치와 관련된 모든 입장을 배제하고 더구나 주관적인 모든 것을 추상화한다. 그 결과, “사실에만 마음을 두는 학문은 단순히 사실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Merely fact-minded sciences make merely fact-minded people) (1970: 6). 과학적 객관적 진리는 세계가 무엇(what)인지를 수립하려 하면서도 어떻게(how) 그 세계가 선형적으로(apriori)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과학적인 인식에 선행하여 그리고 그러한 인식 안에서 우리 세계의식의 주관적인 구조를 파고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5) 우리는 근대 실증과학들의 근원에서 유래하여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편견들의 힘의 적절한 예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군사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군대와 관련된 것은 너무도 흔하다. 이보다 더욱 더 심각한 편견은 우리 사회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인간형이 군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형의 전형을 학교, 회사, 및 공공 영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와 군사주의의 편견은 군대 갔다 온 아버지, 군대 갔다 온 선생님, 군대 갔다 온 친구와 애인, 군대 갔다 온 선후배와 직장상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만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6) 19세기에 들어 칸트는 역사적 전통들이 뒤섞여 모든 과학자들에게 인식론과 관련된 의사 철학적 분위기와 혼재된 것과 같이 심지어 경험주의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19세기 유럽 철학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Husserl 1970, pp. 191-197을 참조하라.

초월학문과 관련하여 20세기 현상학은 새로운 자연과학에 병행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스스로를 근원적으로 정초하려했던 당시 심리학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심리학이 심리적 존재의 보편적 학문에 대한 심리학 본연의 과제를 탐구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본다. 심리학은 자연과학을 모델로 “객관적이며 그래서 구체적인 보편학으로서 주도이념을 추구했다”(Husserl 1970: 203)는 것이다. 흄스 이래 로크와 그 후계자들의 심리학주의적 인식론을 따르고 있는 근대 심리학은 한마디로 이러한 객관주의적인 태도만을 고집함으로써 이른바 초월론적 주관성의 차원에까지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sup>7)</sup> 로크류의 심리학주의적 인식론에 따르면, 내적 자기 경험이 보여주는 이념(ideas)들만이 직접 자명한 것으로 주어지며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은 단지 추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자아가 자신의 내적-심리학적 (internal-psychological) 타당성을 뛰어넘어 여하히 마음 밖에 있는(extrapsychic)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로크식의 소박한 자연주의에서 마음은 물체와 다름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완결된 실재적인 것이 되는데 후설은 이처럼 마음을 단순히 심리적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백지(a writing tablet)”로 파악하는 로크의 방식을 “데이터-감각주의(data-sensationalism)” 또는 “심리적 원자론(psychic atomism)”이라 부른다.<sup>8)</sup> 우리가 심리학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오늘날 심리학의 역사는 단지 “위기들로 점철된 역사”(a history of crises)라는 현상학적 비판이 매우 타당하다.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은 진정한 초월철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진정한 초월철학의 발전은 심리학 고유의 과제와 방법이 가장 심오한 자기성찰과 철저한 개혁을 이룬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과제를

7) 로크는 자신의 위대한 저술, 『인간오성론 An Essay concerning the Understanding』에서 경험주의적 시각으로 순수 자연과학과 상응하는 새로운 심리학을 발전시킨다. 이 심리학은 물질적인 몸과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이른바 “introspective psychology”라는 것으로서 데카르트의 심리학과는 전혀 다르게 객관적 학문의 객관성을 정초하려는 새로운 인식론적 기능을 담당한다. 로크는 데카르트적인 판단중지와 자아로의 환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아를 자기 경험이 갖는 자명함으로 자아의 내적 상태, 작용, 능력 등을 알게 되는 마음(soul)으로 이해하고 있다.

8)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감각주의는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가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 다음과 같은 모 투자증권사의 광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이라는 게 그렇다…… 객관을 믿고 데이터를 믿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의 돈은 안다.”



일관되고 순수하게 관찰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초월론적 주관성에 관한 학문으로, 따라서 심리학을 보편적 초월철학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끌어야만 하기 때문이다(1970: 203).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사이몬이 사회심리학 원칙들에 입각하여 “진정한” 행정 과학을 추구한 것은 많은 행정학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왈도는 이러한 사이몬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이몬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사실 구분으로 대치시켰다. 그는 과학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상 깊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진정한’ 과학을 제시하였다. 그는 소위 원칙들이 주먹구구식 방법 또는 민속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진정한 과학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였다. 사이몬은 지나간 세기에 우리들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들을 가장 강력하게 다룰 수 있는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1980: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가치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적인 차이에 토대하고 있는 사이몬의 결정이론은 무엇보다 ‘공공’의 개념을 외면하였고, 행정과 결정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의 한계에 깔려있는 가치문제들을 간과하였으며 그 과정이 결국 정치행정 이원론과 유사하다고 왈도는 비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이몬에게 있어서 결정의 토대는 과학, 사실, 측정이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된다. 그래서 왈도는 이러한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행정학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간 경험의 어느 한 영역에만 만족하면서 이를 전체인 것처럼 다루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놀랍게도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현상학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1948/1984, xxxviii)에 있다고 말한다.

## 2. 초월학문의 발생

그렇다면 실증주의적 객관학문 및 심리학과 분명히 다른 초월학문은 과연 어떠한가? 후설의 용어로 표현하면 초월학문은 미리 주어진 생활세계 안에서 주관적 구성물로 주어지는 존재의 감(sense)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전에 경험하는 삶의 성과물을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독일 사회학자 버거와 룩크만(Berger and

Luckmann)은 그들의 유명한 저작 『실재의 사회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1966)에서 실재를 주관적인 구성물로 파악하였고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에 대한 이러한 대안을 분류하는 행정학도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초월적 접근 태도를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 부르고 있다.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구성주의’는 공공조직 학도들에게 사실 조직적 실재, 다시 말해서 행정가가 일상생활의 유입과 흐름(flux and flow)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견고해보이 기만 하던 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게 되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의 측면(subject-active-voluntarist side)을 무시하지 않고서도 체계학(systematics)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Miller and Fox, 2007: 제4장).

이렇듯 구성주의적 학문에서 “객관적 진리”는 오직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고, 나아가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존재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타당성 주장의 성취물에 토대한다기보다는 “선과학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 세워진 높은 차원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월학문의 진정한 의의는 세계, 즉 일상적인 직관의 세계는 물론 과학적인 세계가 인식되거나 우리를 위한 그 존재적 타당성을 갖도록 하는 의식적 주관성, 즉 초월론적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발생했다는 데에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초월학문은 위에 언급한 과학적이고 선과학적인 세계에 대해 순수 정신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순수 정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인간적 주관성이 곧 초월론적인 주관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초월론적 인식론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주의’의 수렁에 빠지기 쉽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주관성을 고려해 볼 때, 초월철학은 항상 “불가해성(incomprehensibility)”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그래서 경험적인 주관성과 초월론적인 주관성의 차이도 그리고 동일성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해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바로 칸트의 초월철학의 정립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그의 초월적 입장은 원칙적으로 소박한 객관학문(naive-objective science)에 토대하는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구해내려고 하는 초월학문의 씨앗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데카르트가 그의 제일성찰에서 ‘필증적인 자아(the

apodictic ego)’를 통해서 절대 주관주의적인 철학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뿌려졌다. 이에 대한 후설의 표현은 자못 극적이다. 초월론적인 순간은 바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의사-회의적 판단중지의 지옥을 통과해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철학에 이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천국의 문으로 뛰쳐나가려는(vordringen; to push forward) 본래적인 동기”(1970: 77), 즉 “필증성의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동기(the motive which arises out of the demand of apodicticity)”이다. 후설은 데카르트의 초월론적 동기의 발견을 콜럼버스가 자신이 발견한 신대륙을 서인도제도도 오인한 것에 비유한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당연히 여겨졌던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본래적인 동기를 끝까지 생각하고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더 이상 밝혀지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전제 없는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더욱 분명한 기초 위에 수립되기까지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Cresswell, 2005: 77).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구성하는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된다.

### 3. ‘초월론적인(transcendental)’ 것의 의미

후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초월론적 동기’에서 ‘초월론적’이라는 형용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개념은 모든 근대철학의 일관된 역사성을 숙고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월론적”이라는 말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모든 철학들에 그 의미를 부여한 동기로, 그 모든 철학에서 제정신을 차려 자각하게 된 동기로, 즉 모든 인식형성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되돌아가서 묻는 동기로, 인식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인식하는 삶에 대한 자기성찰의 동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안에서 그에게 타당한 모든 과학적 구조는 목적론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전 초월론적인 문제들은 “이 나” (this I) - 자아 - 와 맨 처음 자명하게 정립된 것 - 내 마음(soul), 세계에 대한 이 자아와 나의 의식적인 삶의 관계를 감싸고 있다.9)

9) “The whole transcendental set of problems circles around the relation of this, my ‘I’ - the ‘ego’ - to which it is at first taken for granted to be - my soul - and, again, around the relation of this ego and my

그래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초월론적인 것’의 개념은 세계로부터 이 세계를 구성하되 그 자신은 비세간적인 주관성으로의 초월함을 가리킨다. “초월론적 자아로서 나 자신은 세계를 ‘구성하고’ 영혼으로서 나는 세계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아이다.”<sup>10)</sup>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는 “근대철학 안에 그 발전의 추동력으로 남아있으며 모호한 잠재태(dynamis)에서 그것의 현실태(energeia)로 나아가려 애를 쓰는(hinstrebenden; striving-forward)”(Husserl 1970, 98) 데에 있다고 후설은 강조한다.<sup>11)</sup> 그 결과 칸트는 객관적으로 경험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칸트는 객관학문을 주관성 안에 남아있는 성취라고 본다. 따라서 초월철학이 진정으로 철저히해지기 위해서는 철학으로서 그것이 지닌 사명을 보다 잘 이행하여 이의 현실적이고 참된 존재(Dasein; thus-ness)에 도달하고, 그 다음 철학의 현실적이고 참된 출발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 철학자가 “자기 자신을 근원적 원천으로 기능하는 주관성에 대한 명백한 이해”(a clear understanding of himself as the subjectivity functioning as primal source)(Husserl 1970, 99)에 다다를 필요가 있다. 칸트의 철학은 이러한 도상에 있었고 현상학적 초월철학의 형식적-일반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흄의 회의주의 철학을 제외하면 사실 칸트 체계야말로 참으로 보편적인 초월철학을 향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conscious life to the world of which I am conscious and whose true being I know through my own cognitive structures”(98)를 참조하라. 후설에게 있어서 자아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자아가 아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세계에서 구성되고 동시에 그 세계를 구성하는 “이 나”이다. 바로 이 나가 그의 진리론의 출발점이 된다.

10) 위 인용문의 독일어 원문과 영어번역은 다음과 같다. “Ich selbst als transzentes Ich ‘konstituieren’ die Welt und bin zugleich als Seele menschliches Ich in der Welt” (Husserl, 1962: 205). (I myself, as transcendental ego ‘constitutes’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as soul, I am a human ego in the world.)

11) 후설은 칸트의 위대한 발견들 중의 한 예로 자연과 관련된 “오성understanding”의 두 기능이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 오성은 명백한 성찰 안에서 스스로를 규범적인 법칙들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 “이미 발전되고 더욱 발전하고 있는 의미지형도(meaning-configuration)를 암묵리에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형도를 “직관적으로 주어진 주위세계”라 부른다. 그는 또한 칸트를 초월론적인 동기의 맥락에서 “절대적인 내적 소명감(Berufung; calling)의 책임 있는 진지함”(198/330)을 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위해 투쟁했던 최고의 철학자로 꼽는다. 특히 칸트는 그의 이론들 속에 은폐되어 있는 위대한 발견들을 드러내기 위해 “비판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위대한 발견은 칸트 자신의 이론 방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하다고 후설은 얘기한다.

지금까지 현상학을 통해서 제시한 초월학문의 진행은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진행으로서 “처음에는 단지 일종의 본능적인 예측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Husserl 1970, 198). 이러한 새로운 문제설정은 지금까지 전 학문의 토대방식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에서 야기되었고 이어서 여러 예기치 못한 난관 속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취의 자명함(self-evidence)을 통해 이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첫 번째 자명함은 여전히 또 다른 석연치 않은 전제 형식이 깔린 여러 모호한 요소들을 감추고 있어서 계속해서 자명함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설에 따르면, “모호한 요소들은 더욱 골치 아파지고, 추정된 자명성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이론들은 비판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촉발(Antrieb; impulse)을 일으킨다”(같은 쪽).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초월학문은 슬며시 단순한 기예(techne)나 공동화(空洞化) 과정으로 결코 변형될 수 없는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2)</sup> 그러기에 초월학문은 지극히 자연적인 방해로 인해 불행히도 인류나 심지어 과학자들에게 누천년 동안 은폐된 채로 남아있어야 했고 앞으로도 다분히 그럴 운명이다.<sup>13)</sup>

요컨대, 지금까지 칸트는 모든 과학적이고 선과학적인 전통으로부터 철저한 해방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출발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첫째,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의미와 타당성 가운데서 구성하는 절대적인 주관성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둘째, 그는 그 존재의 필증성(apodicticity)에 따라서 주관성에 도달하고 심문하며 필증적으로 밝히는 방법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후설의 현상학적 사유는 위에서 보여준 데카르트적인 전회와 칸트적인 전회의 대립 사이에서 작동하며 그의 야심은 이 둘 사이에서 궁극적인 전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칸트 이래 초월론적 전환을 위한 투쟁은 결국 진정한 초월론적 환원을 위한 투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의 방식이 “신비적으로 구축하여 추론하는 방법”이라면 후설은 “철저하게

12) 만약에 초월철학이 어쩌다 공동화 과정을 밟게 된다면, 그 공동화에 의해 기예가 되어버린 것은 단지 의미를 감추게 된다. 이렇게 감춰진 의미의 온전한 깊이는 오직 “초월론적으로만” 드러날 수 있게 된다(193).

13) 사실 초월학문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정신성의 차원이 한번쯤은 감지되었지만 습관적이고 나아가서 이론적인 관심으로 결코 작동할 수 없었던 데에는 “이러한 차원에 스스로 몰입하는 것(Sicheinlassen; the entry into this dimension or self-involvement)과 자연적이며 일상적인 인간의 세계 삶을 형성하는 모든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몰두하는 것(Beschäftigung; preoccupation)에 독특한 대립”이 있다고 후설은 주장한다(218).

직관적으로 해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칸트가 애 기하고 있는 모든 초월론적 개념들, 예컨대, 초월론적 통각(apperception), 초 월론적 능력의 자아,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토대가 되고 있는 물자체의 자아 개념들은 궁극적인 해명을 가로막는 “구축적인(constructive)”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진정한 실마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 끌려간 “내적 변화를 통해서 오래전에 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 상 은폐되었던 ‘초월론적인(the transcendental) 것’의 차원을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게 되며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direkter Erfahrung; the direct experience) 하게 될 것이다”(1970: 100)에 있다 할 수 있다.<sup>14)</sup>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체험 분석은 바로 여러 개개인들의 직접적인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크레스웰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상학자들은 인간의 경험 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려 한다(Creswell, 2005: 76).

이러한 형태의 초월학문이야말로 엄밀학(a rigorous science)의 전형이 된다. 여기서 엄밀학, 즉 “진정으로 과학적”(truly scientific)이라 함은 바닥에서 부터 자명한 각 계단들을 밟아 위로 올라가 궁극적으로 정초지어지고 정초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상학적 초월학문은 “참으로 생생한 출발점(a truly living beginning)”(Husserl, 1970: 193)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현상학이 선과학적-과학적 객관주의와 대립하고 있으며 인식하는 주관(the knowing subjectivity)을 “객관적인 감각형성과 존재적 타당성”(the primal locus of all objective formations of sense and ontic validities)으로 되돌 리며, 존재하는 세계를 “감각과 타당성의 구조”(a structure of sense and validity)로 이해하고자 함을 그의 생활세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질적 연구의 현상으로서 생활세계

흥미롭게도 지난 세기 새로운 철학을 소개했던 후설과 비트겐슈타인은 괴

14) 이러한 철저한 의미에서 흄과 칸트의 미성숙한 형태의 초월철학, 근대의 물리주의적 자연주의, 그리고 모든 객관주의적 철학은 ‘초월론적 소박함(transcendental naivete)’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들이 소박한 이유는 이들 모두 인식 형성 과정의 궁극적인 토대를 밝 히려는 초월론적 동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주위세계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테의 「파우스트」 1부 L1237의 “처음에 행위가 있었다(Im Anfang war die Tat)를 비슷한 용도로 인용하고 있다. 먼저 후설의 인용문을 보자. “처음에 행위가 있었다. 이 행위는 아직 불확실한 계획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실행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1970: 156). 그 다음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행위와 관계를 밝히고 있다. “언어게임의 기원과 원초적인 형식은 어떤 반응이다. 이것으로부터 만이 더욱 복잡한 형식들이 발전할 수 있다. 언어는 ‘처음에 행위가 있다’의 순화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sup>15)</sup> 후설은 자신의 인용문에서 행위(deed)가 말(logos)에 선행하고, 주관적 속견(doxa)이 객관적 지식(episteme)에 선행함을 강조함으로써 무릇 모든 과학의 토대는 논리가 아닌 행위에 있으며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아닌 일상 지식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처음에 있었던 행위의 정교화가 언어임을 강조하고 있다. 후설의 주관적 속견에 대한 관심은 생활세계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된다. 이 생활세계는 모든 인간 생의 보편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과학의 토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근원과 그 게임이 어떤 반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후설에게 있어서 모든 객관적 진리의 근원 또한 우리의 일상적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가피한 소박함(naivete)과 함께 발생한다는 통찰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의미심장하다. 후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생활세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의 제 양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제 양식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관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sup>16)</sup> 이것은 다름 아닌 현장의 언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홍우 교수는 현상학을 현장, 즉 ‘총락에서’ 연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15) 위 인용문의 영어번역은 다음과 같다. “The origin and the primitive form of the language game is a reaction; only from this can more complicated forms develop. Language - I want to say - is a refinement,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Wittgenstein, 1980: 31).

16)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생활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형식은 다름 아닌 언어의 관용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언어를 터득함으로써 그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어가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떤 기발한 생각도 정작 관용적 표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 또한 이러한 언어의 관용적인 순화 과정을 통해서 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적인 환상(fantasms)과 강한 이미지들은 우리들 자신의 언어로 읽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어츠는 ‘인류학자들은 촌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촌락에서 연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여기서 현상학이란 ‘촌락에서’ 연구하는 입장이며, ‘생활’에서부터 정치, 경제, 법, 전쟁, 언어, 종교, 예술, 대학, 직장 등등을 바라보는 입장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김홍우, 2008: 4).

먼저 촌락과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세계는 문화적-역사적 세계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세계는 언어, 실천적 대상, 인간, 예술작품 등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생활세계는 다양한 층위의 객관화를 포함하고 있는 지각적 사물들의 시공적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유일한 과제는 단순히 주관적이면서 겉으로 파악할 수 없는 ‘헤라클레이토스적 흐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내 앞에 있는 아이팟(ipod)은 ‘나의’ 아이팟이며, 이는 나의 지각 안에서 음악소리를 재생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어떤 시점에서 정교한 소리를 재생할 목적으로 요긴하게 발명된 그 무엇 등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팟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비감각적인 속성들, 예컨대, ‘나의,’ ‘정교한,’ ‘음악’으로부터 추상하여 나의 관심을 단지 완벽하게 구체적인 현상 안에 포함된 감각적인 속성, 예컨대, ‘하얀,’ ‘부드러운,’ ‘가벼운’ 등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여기서 후설은 지각 대상이 구체적 생활세계의 특정한 수준에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추상 과정을 통해서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역사적 세계는 상대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생활세계가 아니라 다원적이다. 각 생활세계는 지향적으로 특정한 상호주관적인 공동체를 지시하거나 상대화한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다원성은 세계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내용과 지평들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생활세계에서 가능한 주관성의 자기타당성은 주체성의 자기 성취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지평, 즉 주체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과학의 객관성과 생활세계의 주관성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의 주관성을 분리된 존재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항상 세계에 녹아들어 있는 감(sense)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후설이 제시하고 있는 생활세계 분석은 지향적인 상호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선험성, 유물성,



질료성 및 타자성에 대한 초월론적 연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그리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생활세계는 “이 세계 속에서 그들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현실성(Wirklichkeiten; actualities) - 이 가운데는 예를 들면 신들, 정령들 등이 있다 - 을 지닌 그들 자신의 주관적 타당성”(Husserl, 1970: 272)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위세계는 “우리 속에서, 즉 우리의 역사적 삶 속에서 이루어진 정신의 형성물”로서 “정신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사람이 그 주위세계에 대해 순수한 정신적 해명 이외에 다른 해명을 요구할 어떤 근거도 없다”(Husserl, 1970: 272).

그래서 생활세계의 영역인 전소여적(pre-given) 주위세계의 자연을 “정신과 소원한 무엇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 추정컨대 인문학을 정확히 하기 위해(to make it exact) 자연과학으로 기초 지우려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같은 쪽)고 후설은 주장한다.<sup>17)</sup> 과학적 세계가 “전제된 생활세계를 위해 무한대로 뺄어 나가는 목적론적 형성물(Zweckgebilde; the teleological constructs)”인 반면에, 생활세계는 “항상 미리 주어지고, 항상 미리 타당한 것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의도나 주제로서 그리고 어떤 보편적 목적에 따라서는 타당하지 않는 세계”(382)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세계, 즉 생활세계와 객관적-학문적 세계를 갖게 된다. 물론 이 둘은 서로 관련된 하나의 관계 속에 있으며 객관적-학문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생활세계의 명증성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활세계는 연구자 또는 연구공동체에게 토대로서 미리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더라도 그 구축물은 새로운 것, 즉 전혀 다른 것이다(Husserl, 1970: 130). 과학 역시 전통의 한 양식으로 존재하는 한 생활세계의 한 부분이다. 즉, 과학은 어느 일상에서의 사고양식과 다름이 없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관습적인 이해의 양식인 것이다. 과학 안에서 생활세계는 생활세계 특유의 익명성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로 나타난다. 이것은 곧 과학이 실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생활세계가 부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역시 자신의 상황성을 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학은 또한 생활세계와 긴장 상태에 놓여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이에 반해서, 자연과학의 위대함은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정확한 설명에 이르는 단순한 방법적 과정이고자 하기 때문에 직관적 경험적 절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Husserl, 1970: 270)에 있다.

한편 생활세계의 접두어 ‘살아감(Leben; living)’이라는 말 역시 후설에게는 어떤 생리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형성물을 수행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의미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거나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지평 안에서 ‘나’와 ‘우리’로 공동화 되어 살아가는 것”(Husserl, 1970: 270)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수한 주위세계에서 살아간다 함은 “우리 모두의 보살핌(cares)과 노력을 기울이는 현장”으로서의 “정신적인 영역 안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사태”(Husserl, 1970: 272)를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는 주관적-상대적인 세계이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세계(the surrounding life-world)를 구체적이면서도 소박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의 토대”(Sinnesboden; the ground of sense)로서 생활세계에 대한 후설의 분석은 주로 과학이론과 선과학적 경험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활세계는 “자연과학의 잊혀진 의미토대,” “유일한 실재세계, 즉 지각을 통해서 실제로 주어진 세계, 우리의 일상생활 세계인 늘 경험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 후설은 항상 과학에 기초한 객관적 진리와 일상생활의 주관적인 진리가 이중으로 존재한다는 위험스런 경로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그가 말하는 학문적 성격의 범위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세계 삶이 끊임없이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삶, 즉 초월론적인 삶의 특수한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970: 175). 모든 객관적인 진리가 생활세계에 토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세계야말로 자명하게 검증될 수 있는 것의 총체이며, 목표로 삼음으로써 거기에 존재하고, 존재자 즉 실제적 존재자를 항상 새로이 목표로 삼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는 또한 기하학의 이념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직관된 선과학적 생활의 세계”이자 “선소여적pre-given 세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생활의 직관적 주위세계”이다. 그래서 현상학자의 관심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혹은 추후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모든 종류의 실천을 수행하는 것”(Husserl, 1970: 177)에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실천의 방법으로서 귀납

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사실 학문 이전의 생활에서 경험과 귀납(induction)에 입각한 우연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 IV.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서 귀납(induction)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생활세계 개념의 핵심적인 기능은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친숙함(familiarity)에서 발생하는 긴장(tension)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 초월론적 문제의식의 단서가 들어있다. 이 말은 토대(ground or foundation)로서의 생활세계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특정한 문제의식 밖에서 거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월론적 문제의식을 통해서만이 그동안 실증과학의 발전이 지배적으로 우리 삶의 표층에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해명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후설의 성찰에서 생활세계는 객관주의(objectivism)의 소박함, 즉 객관주의 과학이 추구하는 명료함과 대조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다. 초월론적 맥락에서 볼 때, 세상의 진리, 사물들의 진리는 항상 과학적 진리 이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후설이 후자의 진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세계나 과학적 명료함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참된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활세계는 믿음, 즉 “일상적 의견”(doxa)의 세계이다.<sup>18)</sup> 이러한 의견의 삶에서 우리는 세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다 깊은 사고 내지는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토대로 삼는다. 따라서 세계가 주어진다 함(givenness)은 개념으로 의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고정되기 이전의 애매한 형식을 가리킨다. 생활세계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부정확하며 실용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단순히 상상적이거나 자의적, 개인적 선호에 대해 상대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삶이 의지하

18) “doxa”라는 말은 그리스 동사 “dokeō”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to appear” 또는 “show oneself”를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doxa”는 말 속에 드러나는 어떤 질문 형식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한다. 말로 기술될 수 있는 “the world-soul”이 발생할 때 이는 “becoming”이나 “unchanging”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전자의 영혼에서는 “doxai”가 후자의 영역에서는 “epistémé”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고 일상 실천에 필요로 하는 경험, 즉 이른바 귀납은 과학적 방법에 따르는 귀납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물론 과학적 방법에 따르는 귀납은 일상적 귀납으로부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모든 유의미한 귀납의 지평으로서 미리 주어진 세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바로 이 세계를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실재성의 세계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물체적 형태와 더불어 시간 공간적 형식은 실제로 경험하는 직관의 세계인 이 세계에 속하고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들 자신은 우리의 신체적 인격적 존재방식에 따라 살고 있다(1970: 50).

후설의 과학적 방법에 따르는 귀납은 관찰에서 기인한 귀납적 지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과학적 귀납은 17세기 이래 영국에서 경험주의적 가설의 전개를 뒷받침해 주었으며 19세기 밀(J. S. Mill)은 이러한 귀납논리를 정신과학(moral sciences)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기술하였다.<sup>19)</sup> 20세기 들어 사이몬은 이전의 비과학적인 행정이론을 비판하고 과학적 기초를 가진 행정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실증주의적 귀납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imon 1997). 후설이 자신의 현상학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일상실천에 따르는 귀납은 생활세계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귀납법은 일종의 예견능력을 요구한다. 즉 ‘자기 자신을 가짐’(Selbsthaben; having-something-itself), ‘미리 가짐’(Vorhabe; pre-having), ‘미리 사념함’ (Vor-meinen; meaning-something-in-advance)으로써 미래를 예견(Voraussicht; anticipation)하려는 우리의 삶은 가장 본래적인 의미의 초월적 지평 위에서 발생하는 귀납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후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단순한 경험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확실성(Seinsgewissheit; certainty of being)조차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미 귀납적”(1970, 51)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귀납은 객관적인 영역 안에서의 귀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두 가지 다른 귀납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관성의 측면에서도 각각 기능하는 주관성(the functioning subjectivity)과 객관적인 주관성(the objective subjectivity)으로 구분

19) 밀은 일관되게 추론과정으로서 귀납에 입각한 자연과학의 방법적 타당성이 인간과 정신에 관한 학문, 예컨대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과 같은 학문영역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대논리학 저작,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London: Routledge, 1974), Book III and Book IV를 참고하라.

되는데 문제는 주위세계를 위해 항상 선행하여 기능하는 본래적인 주관성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정신의 영역에서 잊혀진다는 데 있다(Husserl 1993: 29, 60, 65, 70, 410을 보라).

따라서 후설은 지평으로서 선소여적(pre-given) 생활세계와 관련하여 “지향적인 대상(any intended object)”은 어떤 배경에 반해서 그리고 보다 더 주어진 사물들의 주위(Umgebung; surroundings)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과 주어진 사물들이 그 대상의 ‘외적 지평’ (external horizon)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 후설은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감춰져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드러날 수도,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지향적인 대상에 대한 ‘내적 지평’ (inner horizon), 즉 그 대상의 보다 심원한 정의 과정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평이 스스로를 모든 소여(givenness)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향적인 대상은 물론이고 지향적인 행위에도 적용된다. 즉, 주어진 것은 언제나 실제로 주어진 것 이상을 의미하게 된다(The given is always meant as more than that which actually given).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세계는 ‘모든 지평들의 지평’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설은 생활세계가 끊임없이 하위토대로서 기능하는 방식과 이의 다양한 선논리적 타당성이 논리적 진리와 이론적 진리의 토대로 작동하는 방식들이 학문적으로 탐구되어 오지 않았음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후설의 생활세계는 “단순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지만 그 주관성을 의식하지 않는 세계이며, 특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수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이다. 오늘날 과학의 세계에서 문제는 “이 ‘단순히’(bloss; merely)라는 말이 예로부터 내려온 유산으로서 개인적 의견(doxa)이라는 경멸적 색조를 띠고 있다”(Husserl, 1970: 125)는 점이다. 하지만 후설에 의하면 이러한 단순히 주관적-상대적 직관은 생활자체에서는 충분한 검증(verification)의 영역이며, 생활의 실천적 계획이 필요로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진리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주관성과 객관적 참된 세계 사이의 대조에서 후자가 지각될 수 없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존재 안에서 경험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이론적-논리적 구성물인 반면 생활세계의 주관적인 것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생활세계는 근원적 명증성

(self-evidences)의 영역이다. 명증적으로 주어진 것은 ‘사물 그 자체’에 따라 직접적인 현전(presence)을 통해 그 자체로 경험된 것으로서 지각 속에 있거나 그 자체가 기억된 것으로서 기억 속에 있다. 그밖에 모든 직관방식은 그것 자체의 재현(re-presentation)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간접적인 인식 - 넓게 말하자면, 모든 귀납방식 - 은 직관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한 귀납이라는 의미, 즉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것 또는 지각되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귀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Husserl, 1970: 127). 여기서 모든 귀납은 궁극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그 경험들은 순수하게 생활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자명성이며 그 자체로 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수립된 것을 위한 자명성의 근원이 된다. 정확히 말해서 객관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후설 현상학의 진리추론 과정에 있어서 귀납의 중요성은 해석학적 질적 연구를 확립한 가다머에 의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가다머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헬름홀츠(Herman Helmholtz)에 따라서, 귀납법을 논리적 귀납법과 예술적-본능적 귀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 두 방법이 “귀납적 추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신과학의 추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Gadamer, 2000: 34). 가다머 역시 이러한 귀납법에서 “감지력(Taktgefühl; a tact-feeling)”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감지력은 상황에 대한 특정한 감수성과 감각능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태도로서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다른 종류의 정신적 능력, 예컨대 “풍부한 기억력 및 권위의 인정과 같은 정신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자연과학자들의 의식적인 추론작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오성(reason)”의 사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2000: 35 & 53). 후설의 일상실천에 따르는 귀납법과 가다머의 예술적-본능적 귀납법은 공히 행정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V. 결어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학의 영역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과학의 객관주의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행정의 과학화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조

는 다름 아닌 이러한 객관주의, 즉 논리 실증주의였다. 현상학의 시각에서 볼 때, 과학적 객관주의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지고 자명한 세계에 토대하면서, 이 세계의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세계에서 합리적인 존재를 위해 무조건 타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객관주의의 과제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지식(doxa)과 독립된 합리적 지식(episteme)을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그것 너머에는 더 이상 어떤 합리적인 의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량화된 방법에 준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다루는 “객관적인” 과학이 왜 문제인가? 문제는 이러한 대상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주체’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주체의 배제를 감추고 있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그 방법은 인간 주체를 마치 수량화될 수 있는 자연처럼 동일한 범주의 지식과 동일한 규범의 과학적인 방법에 따르는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주체는 이의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후설은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생활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혁명 중의 혁명은 과학적인 객관주의를 초월론적 주관주의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후설은 자신의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위해서 무엇보다 제한된 범주의 상대주의를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수준에서의 명백히 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적극 수용하면서 동시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이르는 길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상학의 이념은 절대적인 소여(givenness)나 보편적인 상호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는 토대 영역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후설이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던 데에는 생활세계의 본질에 대한 혼선과 무관하지 않다. 생활세계는 철저히 우리 인간의 공통감각에 기초하여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호주관적 구성” (the intersubjective constitution) (Husserl 1970: 168)이야말로 자아들을 위한 타당성의 양식이며 모든 데이터가 주어지는 방식의 총체적인 체계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과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든 구성주의적 사회 이론

은 근본적으로 후설이 제시하고 있는 상호주관적 구성이론에 토대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구성적 인식론을 사회론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칸트의 초월철학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후설은 “인식론이 토대하고 있는 차원으로서 생활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와 다르다.” 둘째, 후설은 기술적인(descriptive) 방식으로 구성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실 칸트 역시 가능한 경험의 세계에 대한 구성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그는 후설과 달리 객관성, 즉 가능한 자연의 인식에 대한 필연적-주관적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칸트가 가장 정확한 경험적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동시에 경험일반에 대한 초월론적 토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데 반해서 후설은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에서 이런 견해의 자명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후설은 자연과학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경험일반의 대상에 대한 하부구조로 보기보다는 파생된 인위적 사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세계를 잊혀진 의미의 토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갈릴레오 이래 자연과학은 어떤 조직된 경험에 선행하여 주어진 다양한 감각들의 종합보다는 생활세계로 조직화된 선과학적 일상경험의 변형으로부터 출현했던 자연의 형식으로 다루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한 공통 감각적 경험은 첫째, 살아있는 몸과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지각영역은 감각 운동적으로 구조화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은 주체 안에서 중심화 된다. 둘째, 일상경험은 단지 인식적 목적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 내에서 정서적 태도, 의도 및 실천적인 개입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필요와 감정적 태도뿐만 아니라 가치판단과 행위역시 자연적 관심의 지평을 형성하고 이러한 맥락에서만 경험은 존재화할 수 있고 교정될 수도 있다. 셋째, 일상경험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내가 다른 주체들과 더불어서 살고,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세계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경험은 상징적인 체계, 특히 자연언어에서 표현된다. 이처럼 후설은 칸트가 물리학의 대상영역을 그의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과학적 이론들이 연구자 공동체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우리가 과학적인 인식의 대상영역을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선택하여 과학이 생활세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 생활세계가 과학적으로 대상화된 실재의미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경험의 세계에 대한 구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의 구성이론은 생활세계의 구성론을 전제하고 이러한 생활세계론은 사회의 구성이론을 포괄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의 구성이론은 이른바 생활세계의 존재론이 될 것이다(Habermas, 1988: 173-174).

이처럼 후설이 기술적으로 정립한 구성개념은 ‘나의 데이터’의 해석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 특히, 그의 분석의 장점은 현상학적 연구가 익명적 의식일반을 그 준거프레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인 관찰자의 개별적, 초월론적 자아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후설은 사회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자아들의 다양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칸트는 경험론적 자아들의 다원성과 단일한 초월론적 의식일반 사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가능한 초월론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일상 체험의 초월론적 주체에 주목함으로써 자서전적 연구, 사례 연구, 근거이론, 민속기술지 등의 보다 구체적인 질적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현상학적으로 가장 유망한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체험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의 의미 파악을 목표로 한다. 현상학에서 모든 질적 연구방법의 출발점은 일상 체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문의 고유한 연구는 우리의 일상 체험의 소박함에서 그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체험 그 자체가 모든 방법들이 의지하고 있는 본래적인 방법이 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현상학은 세계에 대한 존재론(the ontology of the world)보다는 체험의 세계(the world of experience)를 보다 중시한다(Zahavi, 2004).

하지만 현상학적 질적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 연구의 초점이 체험이라는 행위자들의 주관적 관점에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제도적 또는 구조적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참여관찰법 등에서의 의존은 대규모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사회현상의 의미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주관적인 소여(givenness)를 중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설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홍우. (2008). 현상학과 삶의 정치. 「학술원논문집」, 47(2): 163-191.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남인. (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서울: 풀빛미디어.
- 조영달. (2005). 「제도공간의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최협. (1993). 계량적 접근과 질적 접근: 비교와 한계의 문제. 김동일 외(공편). 「사회과학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 폴킹혼·도날드. (2001). 「사회과학방법론」. 김승현 외(역). 서울: 일신사.
- Apel, Karl-Otto. (1988).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A Transcendental-Pragmatic Perspective*. trans. Georgia Warnke. MA: The MIT Press.
- Brown, S. C.(ed.). (1979). *Philosophical Disputes in the Social Sciences*. NJ: Humanities Press.
- Creswell, John W. (2005).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외(역). 서울: 학지사;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8.
- Cruise, Peter L. (2006). Positively No Proverbs Need Apply: Revisiting the Legacy of Herbert A. Simon. In Thomas D. Lynch & Peter L.(eds.). *Handbook of Organization Theory and Management*, 395-415. New York: Taylor & Francis.
- Dobuzinskis, Laurent. (2006). From Positivism to Postpositivism. In Thomas D. Lynch & Peter L.(eds.). *Handbook of Organization Theory and Management*, 555-593. New York: Taylor & Francis.
- Dallmayr, F. and McCarthy, T. (eds.) (1977). *Understanding and Social Inquiry*. IN: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odd, James. (2004). *Crisis and Reflection: An Essay on Husserl's Crisis of the European Scienc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Evans, K. G. and Lowery, D. (2004). The Iron Cage of Methodology: The Vicious Circle of Means Limiting Ends Limiting Means. *Administration & Society*, 36(3): 306-327.
- \_\_\_\_\_. (2006). Prescriptive Thinking: Normative Claims as Scholarship. *Administration & Society*, 38(2): 147-165.
- Gadamer, Hans-Georg. (2000). 「진리와 방법」. 이길우 외(역). 서울: 문학동네; *Truth and Method*. New York: Continuum, 1994.

- Geertz, Clifford. (1998). 「문화의 해석」. 문옥표(역). 서울: 까치;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 Habermas, Jürgen. (1988).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 S. W. Nicholsen and J. A. Stark(trans.). MA: The MIT Press.
- \_\_\_\_\_. (2001). The Phenomenological Constitutive Theory of Society: The Fundamental Role of Claims to Validity and the Monadological Foundations of Intersubjectivity. *On the Pragmatics of Social Interpretation: Preliminary Studies i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arbara Fultner(trans.). MA: The MIT Press.
- Hesse-Biber, S. N, and Leavy, P. (2006). *The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Hummel, P. Ralph. (2007). *The Bureaucratic Experience: The Post-Modern Challenge*. Armonk: M. E. Sharpe.
- Husserl, Edmund. (1962).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Haag: Nijhoff.
- \_\_\_\_\_. (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rgänzungsband Texte aus dem Nachlass 1934-1937*. Dordrecht: Kluwer.
- \_\_\_\_\_.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서울: 한길사.
- Miller, H. and Fox, C. (2007).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Revised Edition*. Armonk: M. E. Sharpe.
- Silverman, David and Marvasti, Amir. (2008).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imon, Herbert A. (199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 Soffer, Gail. (1992). *Husserl and the Question of Relativism*.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tivers, Camilla. (2008). *Governance in Dark Tim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aldo, Dwight. (1948/1984). *The Administrative State*. New York: Ronald Press.
- \_\_\_\_\_. (1980).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Novato: Chandler & Sharp Publishers.
- White. Jay D. (1999). *Taking Language Seriously: The Narrative Foundations of Public Researc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udwig. (1980). *Culture and Value*. trans. Peter Win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Zahavi, Dan. (2004). *Husserl's Phenomenolog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신충식(申忠植)**: 미국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사회과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 (2005)를 받았으며, 논문제목은 “The Living Present and Otherness: A Study of the Living Present and Otherness in Edmund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이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로 현상학에 입각한 정치이론,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및 행정 철학에 관심이 있다. 주요 논문과 역서로는 “왈도의 실증주의 행정 비판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정부와 정책』(2009), 『하이데거의 정치사상』(역서, 근간예정), 『포스트모던 행정』(역서, 근간예정)이 있다 (zeitigung@skku.edu).